

산티아고 순례길



www.spain.info

목 차

개요	3
다양한 루트들	5
프랑스 루트	
북쪽 루트	
최초의 루트	
기타 루트들	
순례하는 방법	18
도보	
자전거	
승마	
요트	
유용한 정보	23
순례길의 숙소	
순례길의 미식	

Ministerio de Industria, Comercio y Turismo
Publicado por: © Turespaña
Creado por: Lionbridge
NIPO: 11518010X

EJEMPLAR GRATUITO

El contenido de este folleto se ha creado con el máximo cuidado. No obstante, si observa algún error, ayúdenos a mejorar enviando un e-mail a brochures@tourspain.es

Contraportada: Catedral de Santiago, Santiago de Compostela



개요

산티아고 순례길(Camino de Santiago)에서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체험해보자. 스페인을 여행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다. 도보 혹은 자전거를 타고 여행하는 방법 외에도 최근에는 요트를 타고 여행을 하는 방법도 있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천 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순례길에 도전해 보자.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를 가는 길에는 놀라운 자연 풍경이 펼쳐져 있고, 또한 역사가 깊은 마을들도 방문할 수 있다.

매년 몇 천 명의 순례자들이 오는 이 갈리시아의 도시에는 야고보의 흔적들이 숨 쉬고 있다. 여러 순례자들이 순례길을 걷는 데에는 다양한 동기가 있다. 자기 자신만의 목표, 종교적 혹은 영적인 훈련, 역사체험, 자연경관, 예술적 관심,

스포츠 등이 이 길을 걷고 경험해 보는 많은 사람들의 동기이다. 당신의 목표가 무엇이든 간에 이러한 경험들은 도전할 만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산티아고 순례길로도 알려진 루따 하코베아에서는 요리 투어를 통해 매우 매력적인 북부 스페인의 미식을 경험할 수 있다.

산티아고 순례길에서는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9개의 세계 문화유산을 방문할 수 있다.



성, 성당, 벽화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스페인의 문화, 전통, 그리고 축제를 즐기며 진정한 스페인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방식으로 순례를 하든 자연과 함께하는 독특한 경험을 선사한다. 피레네 산맥 밑에 위치한 항구에서 시작해서 갈리시아의 마지막 언덕에 도착할 때까지 평야와 숲, 숨이 막힐 듯이 가파른 절벽을 볼 것이며 스페인의 아름다운 국립공원들을 방문할 수 있다.

순례를 하면서 항상 누군가와 함께 할 것이다. 고된 하루 여정 후에 세계 전 지역에서 온 여행자들을 만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또한, 순례길 주변의 주민들은 당신을 반갑게 맞이하고, 순례자들을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 준다.

자연을 만끽하고 평온으로 가득 찬 산티아고 순례길을 완주해보자.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여행이 기다린다.



다양한 루트들

대부분의 순례길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를 종착지로 만난다. 순례길 전체 혹은 일부 구간만 순례할 수도 있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루트들을 소개한다.

프랑스 루트

프랑스 루트의 다양한 여정들은 마치 시간 여행과도 같은 경험이 될 것이다. 프랑스 루트를 탐방하며 역사와 전통을 경험하고, 전설적인 장소들을 방문해 보자. 중세 시대에 이 길을 걸어난 과거 순례자들의 자취를 따라가며, 그들이 남긴 예술적 문화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프랑스 루트를 택한다면, 삐리네오스에서 순례를 시작해 칸따브리까 산맥의 남쪽을 따라 갈리시아에 도착할 것이다. 론세스바예스(나바라) 혹은 썸뽀르뜨(아라곤)에서 출발하는 것이 좋다. 두 출발 지점에서 시작하는 순례 루트는 **뿌엔떼 라 레이냐(나바라)**에서 합쳐진다. 순례 도중에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고 각 지역의 전통 요리를 경험해 보자.



▲ 뿌엔떼 데 비야뚜에르따 나바라



▲ 피니스테르레 갈리시아



▲ 산토 도밍고 데 라 칼사다 라 리오하

아라곤(Aragón) 지역에서는 울창한 숲과 초원을 지나며 매혹적인 경관들을 보게 될 것이다. 아라곤 지역에 위치한 칸프랑크 역(Estación de Canfranc)과 콜 데 라드로네스(Coll de Ladrones) 요새를 방문할 수 있고, 비야누아(Villanua) 마을에서는 꾸익사스 동굴(Cueva de las Güixas)을 방문할 수 있다. 하카(Jaca) 마을에서는 힘든 순례를 잠시 멈추고 휴식을 취하거나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이 마을에서만 맛볼 수 있는 요리인 바칼라오 알 아호아리에로를 놓치지 말자. 아르레스(Arres) 마을에서는 까날 데 베르둔(Canal de Berdún) 전 망대를 방문해 거대한 밀밭, 아라곤(Aragón) 강 유역, 그리고 피레네 산맥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 모나스테리오 데 유소 라 리오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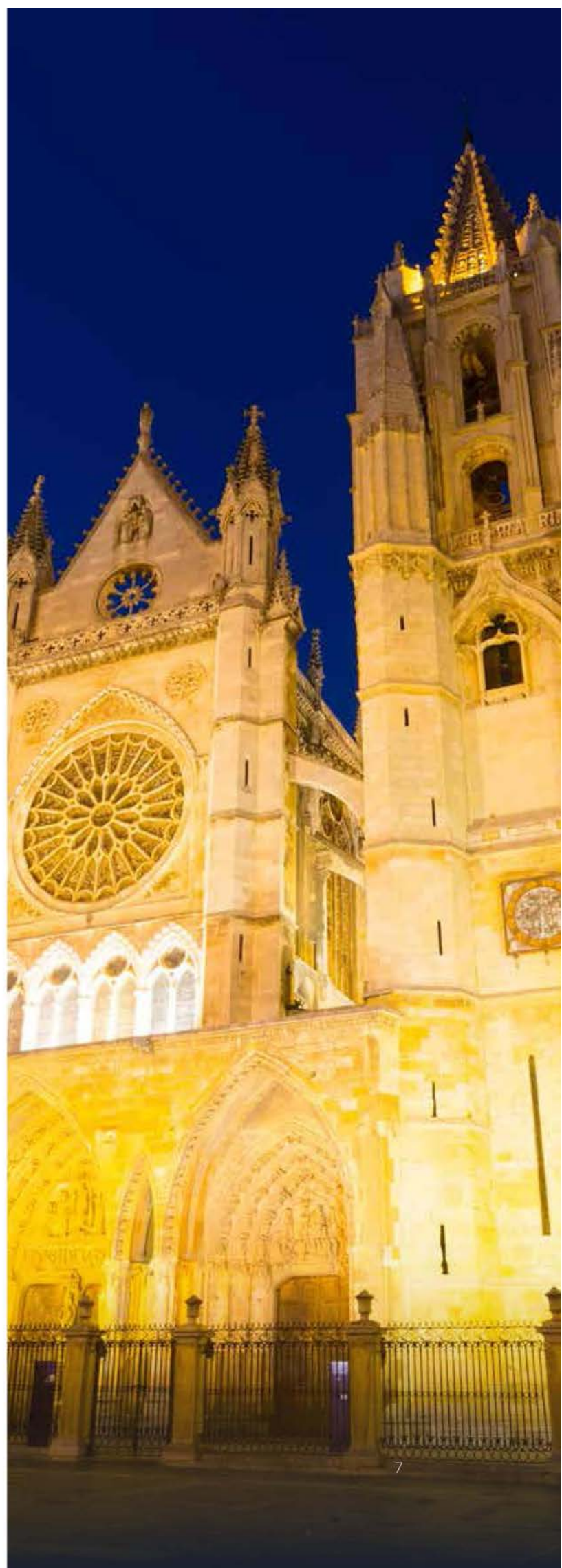
▼ 부엔떼 라 레이나 나바라



나바라 (Navarra)로 향하는 길을 계속 따라가 보자. 나바라의 수도 도시인 **팜플로나 (Pamplona)**에서 파프리카가 들어간 소시지인 보까디오 데 치스 또라를 맛볼 수 있다. 7월 둘째 주에 방문하면 이 지역의 유명한 축제인 **싼 페르민 (San Fermin)** 축제를 볼 수 있다. 아름다운 건축 양식을 보며 **오바노스 (Obanos)**와 같은 소도시를 지나면 로마의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뿌엔데 라 레이나 (Puente la Reina)** 다리에 이른다. 이 다리는 9세기에 순례자들이 **아르가 (Arga)** 강을 쉽게 건널 수 있도록 지어졌는데, 천 년이 지난 지금도 순례자들이 이 다리를 건너고 있다. 여기서 2킬로미터 내에 있는 **무루싸발 (Muruzabal)** 마을에는 루따 하꼬베아의 상징물인 **산따 마리아 데 에우나떼 (Iglesia de Santa Maria de Eunate)** 성당이 있다. 로마네스크 건축 양식을 가장 잘 나타내며 산티아고 순례길을 대표하는 유명한 건축물이다.

자연 경관에 심취해서 걷다 보면 **리오하 (Rioja)**에 도착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와인 생산지인 리오하에서는 바로 와인 테스팅이 가능하며, 소박하면서도 맛있는 **빠따따스 아 라 리오하** 나라를 와인과 함께 곁들여 즐겨 보자. 또 리오하의 **싼 미안 데 라 꼬고야 (San Millan de la Cogolla)** 지역에 위치한 **유소 수도원과 쑤소 수도원 (Monasterios de Yuso y Suso)**도 방문해 보자. 스페인어가 탄생한 이 수도원은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산티아고 순례길로 인해 탄생한 도시 **싼또 도밍고 데 라 깔싸다 (Santo Domingo de la Calzada)**에 도착하면 거대한 종탑에 올라가 멋진 경치를 감상해 보자.



▶ 레온 대성당



까스띠야-레온 지역에 도착했다면 부르고스 도시를 꼭 방문하자. 부르고스는 순례길을 통해 번성한 도시이다.

▲ 아바디아 데 사모스 루고

부르고스는 수 세기 동안 공예품 장인들과 상인들에 의해 번성한 역사적으로도 스페인에서 가장 중요한 상업 도시 중 하나이다. 부르고스 대성당은 고딕 건축 양식의 가장 아름다운 성당 중 하나이다. 산 니콜라스 성당, 산파가데아 성당, 산 에스떼반 성문이 바로 그것이다. 까스띠야 스타일로 구운 새끼 양고기나 부르고스의 모르칠랴를 먹고 원기를 회복해보자. 깜짝 놀랄 것이다.

부르고스 지역에 머물면서 시에라 데 아따뿌에르가 고고학 유적지 (Parque y Complejo Arqueologico de la Sierra de Atapuerca)를 방문하면 인류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알아볼 수 있다. 이곳은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고고학적 유적지이며,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빨렌씨아 (Palencia)에서는 떼라디요스 데 로스 템블라리오스 (Terradillos de los Templarios)를 방문해 보자. 중세 시대에 가장 강력했던 기독교 군사 집단이었던 기사단이 주둔하던 곳이다.



▲ 산파 마리아 사르리아 성당 루고

까스띠야의 방대한 평원을 지나 레온 (Leon)에 도착할 것이다. 레온은 많은 순례자가 순례길의 출발지로 선택한다. 스페인 지역의 로마네스크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까삐야 썩스띠나 예배당은 물론 레온의 대성당으로 알려진 라 뿔끄라 레오니나 (La Pulchra Leonina) 성당을 방문해 보도록 하자. 또한, 산 마르코스 병원 (Hospital de San Marcos)은 이 도시의 유명한 명소인데, 과거 로마 군대의 주둔지로 지금까지 그 흔적이 남아 있다.

수도 근처 아스포르가에서는 천재적인 현대 건축가인 안토니오 가우디 (Antonio Gaudi)가 설계한 에삐스꼬빨 왕궁(Palacio Episcopal)을 만날 수 있다. 순례길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엘 비에르소 (El Bierzo)와 레온 지역의 역사적 중심지이자 과거 기사단이 건설한 요새에 위치한 뽀페라다 (Ponferrada)를 만날 수 있다. 이 레온 지역을 벗어나기 전에 비야프랑까 델 비에르소 (Villafranca del Bierzo)를 방문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구 시가지도 둘러보자. 세라노 하몬과 비슷한 방법으로 숙성된 돼지고기인 쎬씨나를 맛보는 것도 잊지 말자.

이 지점부터 순례길의 지형이 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꾸르스 데 이에로 (Cruz de Hierro)는 프랑스 루트에서 가장 높은 고도에 위치한 지역으로 오 쎬브레이로 (O Cebreiro)에 갈리시아로 향하는 분기점이 존재한다. 산따 마리아 라 레알 (Santa Maria la Real)사원에서는 구름과 안개가 없다면 협곡의 아름다운 일출 풍경을 놓치지 말자.

당신의 여정은 베르데 갈리시아 언덕에서 막바지에 돌입한다. 시냇물과 숲, 넓게 펼쳐진 초원은 신비와 마법으로 가득한 풍경을 이룬다.



▲ 뽀르또마린 루고

여기서는 고대 켈트인들의 유적지를 둘러보고 갈리시아의 전통 미식을 경험해 보자. 갈리시아 스타일의 맑은 수프나 다양한 재료가 가득한 엠빠나다를 먹으며 피로를 풀도록 하자.

샤르리아(Sarria)와 뽀르또마린(Portomarin) 사이에 있는 루고 (Lugo)에서는 순례길에 세워진 로마네스크 양식의 산따 마리아 데 페레이로스 성당 (Santa Maria de Ferreiros)을 보고 감탄할 것이다. 아바디아 데 쎬모스 (Abadia de Samos)에서는 알베르게에 머무르며 성 베네딕트회의 수도사들과 함께 새벽 기도도 할 수 있다.

루고의 빨라스 데 레이 (Palas de Rei) 마을에서는 산 살바도르 데 빌라르 데 도나스 (San Salvador de Vilar de Donas) 수도원을 찾아볼 수 있는데, 내부에는 훌륭한 고딕 양식의 조각품과 돌 제단으로 만들어진 장엄한 박물관이 있다. 또 7세기에 안장된 산티아고 기사들의 무덤도 안장되어 있다.

순례의 종착지에 다다르면, 아 꼬루냐 (A Coruña) 지역에 위치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Santiago de Compostela)라는 매력적인 도시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은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어진 종탑들이 있고, 이 도시로 들어오는 모든 길과 연결되어 교통의 중심지역 할을 하는 **블라싸 델 오브라도이로 (Plaza de Obradoiro)**광장에 있다. 순례길의 종착지는 매우 독특하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며 울창한 숲과 아름다운 공원으로 가득 찬 이 도시의 분위기를 즐겨 보자.



북쪽 루트

북쪽 루트의 산티아고 순례길은 **간따브리아 해 (Mar Cantabrico)**의 해안을 통과하는 루트이다. 프랑스 루트만큼이나 오래된 이 순례길은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여행지로 손꼽힌다. **간따브리아 (Cantabria)**, **바스크 (Pais Vasco)**, **아스투리아스 (Asturias)** 그리고 **갈리시아 (Galicia)** 지역의 작은 마을을 거닐면서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스페인 북쪽 지역 특유의 다양한 미식을 경험해 볼 수 있다.

산악 풍경, 셀 수 없이 많은 강, 해안 절벽, 울창한 숲과 끝없는 초원이 함께 어울려 독특한 절경을 만들어 내는 **그린 스페인 (España Verde)**으로 들어가 보자. 역사가 깊은 마을들과 인생의 활기가 넘치는 도시를 느끼며 잊지 못할 경험을 할 것이다. 이 순례길 또한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온다리비아
귀부스꼬아



베이네 델 비엔도
산 세바스티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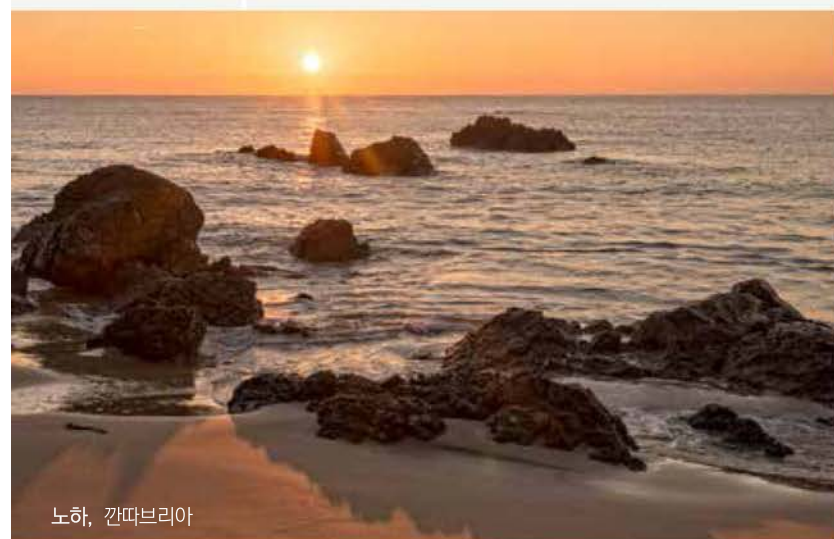
이 순례길 전체를 걷고 싶다면, 프랑스 국경 지대에 있는 이룬(Irun)에서 출발한다. 이곳에서 기쁘스꼬아(Gipuzcoa)를 통과해 도노스티아 산 세바스티안(Donostia/San Sebastian) 중심 도시로 진입하면 우르굴(Urgull) 산과 이헬도(Igeldo)산 사이에 흰색 모래로 뒤덮인 백사장이 펼쳐진 아름다운 휴양지 산 세바스티안(San Sebastian)을 만난다. 작은 마을과 웅장한 저택이 현재적인 모습으로 어우러진 이 도시는 칸타브리아 해변에서 가장 매력적인 도시로 손꼽힌다. 이 도시의 산 텔모 박물관(Museo de San Telmo), 베이네 델 비엔도(Peine del Viento)와 쿠르사알(Kursaal)에서는 도시의 과거와 현대가 융합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또 산 세바스티안(San Sebastian)은 세계에서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이 가장 밀집된 도시이기도 하다.

레스토랑들을 방문해 이 지역의 화이트 와인인 차콜리(Chacolí)를 경험해 하자.

산 세바스티안을 떠나 순례길을 따라 가다 보면, 기쁘스꼬아(바스크) 해안에서 여러 산들을 넘으며 해안가 마을인 짜라우트스(Zarautz), 쭈마이아(Zumaia)와 데바(Deba)를 지날 것이다. 쭈마이아와 데바에서는 오랜 시간 바다의 침식 작용에 의해 깎이면서 생성된 플리쉬라는 대형 층계 암석을 볼 수 있다. 높은 고도에 위치한 아스키수(Askizu), 엘로리아가(Elorriaga)와 잇찌아르(Itziar) 마을에서는 녹색 깎따브리아의 아름다운 전망을 즐길 수 있다.



핀초스



노하, 칸타브리아



빌바오

웅장한 떡갈나무 숲을 지나서 내륙 쪽으로 가다 보면, 바다는 사라지고 비스까야 (Vizcaya) 지방에 도착할 때까지 띄엄띄엄 위치한 작은 마을들만이 보인다. '평화를 상징하는 도시'라는 이름을 가진 게르니카 (Gernika)는 아픈 역사를 느낄 수 있다. 게르니카는 1937년 스페인 내전 중 독일 군과 이탈리아의 폭격으로 인해 마을 전체가 소실되었다. 이는 파블로 피카소 (Pablo Picasso)의 작품의 모티브가 되었고, 훗날 피카소는 자신의 작품에 이 마을의 이름을 붙이게 된다.

비스까야 (Vizcaya) 지방을 떠나기 전에 이 지역의 수도인 빌바오 (Bilbao)에 도착한다. 도시 산업의 과거와 환경을 존중하며 잘 어우러지도록 결합한 현대적인 건축 방식에 깊은 감명을 받을 것이다. 이 도시에 방문한다면 반드시 구겐하임 박물관 (Museo Guggenheim)을 들리도록 하자. 이 박물관은 건축가 프랑크 게리 (Frank Gehry)가 티타늄을 주 재료로 해서 만든 건축물로 현대 예술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빌바오의 구 시가지에서는 핀초스 (Pincho)라는 지역 고유의 타파스를 맛보자. 적당한 크기의 여러 타파스를 이 지역 와인과 함께 곁들여 먹으며 원기를 충전해 보자.

바스크 지방에서 몇 킬로미터만 벗어나면 칸타브리아 (Cantabria) 지방에 도착한다. 가스뜨로 우리디알레스 (Castro Urdiales), 리레도 (Laredo), 노하 (Noja)와 같은 예쁜 마을을 지나가면 칸타브리아의 주도인 산탄데르 (Santander)에 도착한다. 산탄데르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선 중 하나로 손꼽히며 남쪽의 산맥과 바다가 절묘하게 만나 멋진 경관을 이룬다. 산탄데르에 있는 수많은 전망대에서 도시의 전경을 감상하며 구 시가지의 건물과 현대의 건물들과 조화도 같이 감상해 보는 건 어떨까.



소브레야노 궁전,
꼬미야스



▲ 리바데세야
아스투리아스

칸따브리아의 순례길을 따라가면 예술과 역사가 결합된 도시 꼬미야스(Comillas)에 도착한다. 자갈이 정리되어 깔린 도로와 광장에는 과거 명문가들이 거주하던 저택들이 자리 잡고 있다. 근대에 지어진 건물들과 탑을 보면 감명 받을 것이다. 안토니오 가우디(Antonio Gaudi)가 건축한 엘 까쁘리쵸(El Capricho)를

찾아가 보고, 고딕 풍의 소브레야노 궁전(Palacio de Sobrellano)과 폰티피시아 대학(Universidad Pontificia)도 꼭 방문해보자.

꼬미야스 근처에 위치한 산띠야나 델 마르(Santillana del Mar)에서는 구석기 시대의 인류 흔적이 발견된 알타미라 동굴(Cueva de Altamira)이 있다. 이 동굴 내부에는 지금으로부터 18,000년 전 바위에 그려진 그림이 있는데,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아스투리아스(Asturias)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즐기고 고급스러운 음식을 경험해 볼 수 있다. 리바데세야(Ribadesella)와 아네스(Llanes)에는 순례자들을 맞이하는 교구 성당이 있다. 아네스에서 누에스뜨라 세노라 데 돌로레스(Nuestra Señora de los Dolores) 성당 주변의 경치를 감상하고 산 안톨린 해변(Playa de San Antolin)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쉬어 보자.



산 미겔 데 리요 성당, 오비에도

아스투리아스의 도시 **히혼(Gijon)**은 해안가의 현대적인 도시 면모와 문화 유적지가 잘 융합되어 있다. 산 안드레스 데 세아레스 성당(Iglesia de San Andres de Ceares)과 산 따 마리아 막달레나 성당(Iglesia de Santa Maria Magdalena)을 방문해서 로마네스크 건축 양식을 만나 보자.

갈리시아(Galicia)로 이동하기 전, 아름다운 해안 마을 꾸디예로(Cudillero)와 비야 블랑까 데 라 고티스따 베르데(Villa Blanca de la Costa Verde)로 잘 알려진 루아르까(Luarca)와 몬도녜도(Mondoñedo)를 지나갈 것이다.

루고(Lugo) 지방에 위치한 이 마을들은 깎아지른 듯한 해를 마주 보는 협곡에 위치해 있고, 스페인의 문화 유적지로 선정되었다. 신고전주의 양식의 성당들은 수 세기 전으로 이동한 듯한 느낌을 줄 것이다. 이 지역에서는 잘 익은 버터 반죽에 너트와 설탕에 절인 과일을 넣어 만든 전통 타르트를 반드시 맛보도록 하자.

산티아고에서 40킬로미터 떨어진 도시 아르쭌아(Arzua)에서는 프랑스 루트(Camino Frances)에서 온 순례자들과 만날 수 있다.

최초의 루트

이 순례길은 산티아고를 향한 길 중 가장 오래된 길이다. 아스투리아스 지방의 서쪽 내륙을 향해 9세기 순례자들이 남겨 놓은 길을 따라 이동해 보자. 프랑스 루트 (Camino Frances)와 북쪽 루트 (Camino del Norte)에 비해 적은 수의 순례자들이 이용하는 루트여서 보존과 길 안내가 더욱 잘 되어 있다. 특히 숲이 우거진 구간은 걸어 다니기 편하고 아스팔트 포장도 거의 되어 있지 않아서 순례 기간 내내 아스투리아스 지방의 삼림과 숲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다.

아스투리아스 지방의 주도인 오비에도 (Oviedo)에서 순례를 시작한다. 이 도시는 위대한 유물을 가진 활기찬 도시이다. 여기는 산따 마리아 델 나란코

Santa Maria del Naranco), 산 미겔 데 리요 (San Miguel de Lillo)와 산 훌리안 데 뿌라도스 (San Julian de Prados)와 같이 전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어진 성당들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오비에도의 구 시가지를 걸어서 통과하며 도시 건물들을 감상해보자. 산 살바도르 대성당 (Catedral de San Salvador)에서는 성스러운 방 (Camara Santa)이 있는데, 이 예배당은 첫 순례자 왕이 성해포와 같은 성물을 보관하기 위해 지어진 공간이다.

갈리시아를 향해 출발하면 아스투리아스의 중심부를 지나며 가파른 협곡, 폭포, 몇 천 년에 걸쳐 형성된 떡갈나무 숲 등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며 순례를 계속하면 살라스 (Salas) 마을에 도착하게 된다.

▼ 살라스
오비에도





▲ 히혼

아스투리아스의 르네상스 건축물인 꼰레기아 따 데 산따 마리아 (Colegiata de Santa Maria)를 방문하고, 또레 메디에발 (Torre Medieval)에서 전 로마네스크 문화유산들을 감상해보자. 웅장한 경관을 지닌 살라스의 묘지 (Cementerio de Salas)에서는 6미터의 둘레와 15미터 높이를 가진 떼호 데 산 마르틴 데 살라스를 보고 놀랄 것이다.

아안데 (Allande)와 그란다스 데 살리메 (Grandas de Salime)를 지나면서 시에라스 데 까룬디오 이 바예도르 (Sierras de Carondio y Valledor)의 자연이 잘 보존된 풍경에 압도 될 것이다. 갈리시아에 진입하기 전, 살리메 저수지가 아름다운 전경을 선사할 것이다. 프랑스 루트와 합쳐지기 전, 빨라스 데 레이 (Palas de Rei)에서 해발 1003미터의 알또 데 아쎬보 (Alto de Acebo) 산을 관람할 수 있다.

아스투리아스 여행에서 이 지방의 풍부하고 다양한 전통 음식을 맛보도록 하자. 파바다 (Fabada)는 강낭콩과 베이컨, 초리소를 넣어 만든 이 지역의 스투로 암송아지의 고기 두 장 사이에 치즈와 햄을 넣은 요리 까초포 (Cachopo)와 함께 먹으면 순례를 지속할 수 있는 원기와 에너지를 보충해 준다. 또 어느 곳에서나 아로스 곤 레체 (Arroz con Leche)와 사과 전통주인 시드라 (Sidra)를 마실 수 있다.



▶ 까초포



▲ 바다호스

기타 루트들

이 밖에도 여러 순례길들이 있다. 영국 루트 (Camino Ingles)는 영국과 스칸디나비아의 순례자들이 페롤 (Ferrol) 혹은 아 꼬루냐 (A Coruña)에서 출발하는 순례길이다. 포르투갈 루트 (Camino Portuges)는 리스본 (Lisboa)에서 출발해서 대서양 해안을 따라 오쁘르또 (Oporto)와 뚜이 (Tui)라는 국경 도시를 통해 갈리시아 (Galicia)로 들어간다. 비아 데 라 플라타 (Via de la Plata) 순례길은 유서 깊은 문화와 상업 루트인데, 남쪽 세비야 (Sevilla)에서 시작해 스페인 북쪽의 히혼 (Gijon)에 도착하는 스페인 전역을 관통하는 길이다. 이 길은 산티아고 순례길 여러 지점과 연결되어 있다.



순례하는 방법

산티아고 순례길에 도전하기 전 준비를 잘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우리는 당신에게 먼저 몇 가지 팁을 주고자 한다.

순례자가 정해진 루트를 거쳐 산티아고에 도착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순례자 여권으로 알려진 **크레덴시알 데 삐레그리노 (Credencial de Peregrino)**라는 문서를 우선 발급 받아야 한다. 이 여권이 있어야만 저렴한 공공 숙박 시설인 알베르게에서 숙박을 할 수 있다. 지나는 지역마다 그 지역을 상징하는 도장을 받을 수 있고, 큰 도시의 경우 호스텔, 시청, 해당 지역의 교구 성당이나 알베르게등과 같은 **아미고스 델 까미노 데 산띠아고 (Amigos del Camino de Santiago)**를 인증 받은 곳을 방문해야 한다. 순례길의 마지막 도장은 산티아고 대성당에 있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순례자 사무소 (Oficina del Peregrino de Santiago de Compostela)**에서 받을 수 있다.

이 도장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킬로미터의 도보나, 자전거로 200킬로미터의 루트를 완주해야 한다. 또 이 도장은 순례길을 종교적이고 영적인 동기로 종주했을 때만 발급 받을 수 있다. 다른 이유라면 스탬프 대신 순례자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출발하기 전 루트를 어떻게 완주할 지 결정해야 한다. 다양한 옵션이 있지만, 당신이 한 가지를 선택하고 그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팁을 주고자 한다.

도보

까미노를 가장 가까이 경험하고 싶다면, 도보 를 통해 순례하는 것이 가장 접근성이 높고 경 제적인 방법일 것이다. 주변의 풍경을 감상하 며, 자연의 소리를 두 귀로 들으며, 전 세계에서 모인 다양한 순례자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원한다면 홀로 순례길을 걸으며 고독을 즐길 수도 있다. 순례길은 명상을 위해 완 벽한 장소이기 때문이다.

도보로 순례하길 원한다면, 튼튼한 가방을 구 매하고, 가방을 채울 때 가방 안의 물품이 당신 의 체중의 10% 이상을 넘지 않고 8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게끔 꾸리는 것이 좋다. 순례길을 걷다 보면 땅을 디딜 때도 있지만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를 걷기도 하니 길의 종류에 맞춰 편한 신발을 준비하도록 하자. 트레킹화나 자 신의 발바닥에 맞춰 제작된 신발이 좋다. 가파 른 경사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팡이도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위생 물품을 챙기고 작은 구급상자도 잊지 않도록 하자.

순례 중 사고가 나더라도 홀로 남겨지지 않 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친 사람을 돕 는 것은 모든 순례자들의 의무이다.



순례길 몇몇 구간은 여름에도 기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 보온을 위한 외투를 챙기고, 비가 올 경우를 위해 가방과 몸을 덮을 수 있는 우의를 갖추도록 하자. 스페인은 태양의 나라이므로 선글라스와 모자, 그리고 선크림을 충분히 챙기자. 순례 도중 휴식을 취할 때 대부분의 숙소에서는 침낭을 펼칠 수 있는 침대를 내어줄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바닥에서 자야 할 수도 있으므로 매트를 준비하는 것을 추천한다.



자전거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한다면, 자전거로 순례길을 종주하는 것도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 자전거로는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해 많은 지역을 탐험할 수 있고, 하꼬베아 루트의 다양한 관광지까지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연중 내내 어려움 없이 순례길을 종주 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하지만 순례를 최대한 즐기고 싶다면, 당신의 체력 조건에 맞는 경로를 선택해 기온이 온화하고 적당한 계절을 골라 비가 덜 내리는 시기에 순례를 떠나는 게 좋다. 순례자들을 환영하는 숙소가 순례길 전역에 촘촘히 퍼져 있어 일 년 내내 어떤 시점에 방문하더라도 도움을 다 받을 수 있다.

프랑스 루트 (Camino Frances)와 영국 루트 (Camino Ingles)는 순례에 큰 어려움이 없다. 해안 길 (Camino de la Costa)과 북쪽 루트 (Camino del Norte), 최초의 루트 (Camino Primitivo)도 봄과 여름에 더없이 완벽한 순례길이다. 비아 데 라 플라타 (Via de la Plata)를 계획 중에 있다면, 여름에는 높은 기온을 주의해야 한다.

자전거로 순례길을 종주하는 동안 다양한 구간과 여러 갈림길들이 있다. 하지만 표지판이 명확하게 길들을 구분하고 있고, 지도와 자료를 통해 누구나 쉽게 방향을 찾을 수 있다.

도보로 순례자를 위한 조연이 자전거 사용자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추가로 예비 부품, 탈지용 장비, 자전거 바퀴를 채울 펌프 등 자전거를 위해 필수적인 장비들을 꼼꼼히 준비하자. 순례자를 위한 헬멧, 선글라스, 도로를 지나갈 때를 대비한 야광 조끼 등의 기타 장비도 잊지 말자. 호스텔에서 머물 때에도 걸어서 종주하는 순례자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곳이 많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한다.



승마

말안장에 올라타 과거 중세 시대의 왕과 기사들처럼 색다른 순례길을 종주할 수 있다. 말을 타고 하꼬베아 루트를 종주한다면 아주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

말로 순례길을 종주할 때는 준비해야 할 장비가 더 많고, 당신의 말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더 긴 휴식 시간과 장소를 배정해야 하고 긴 여정 동안 말을 위한 사료도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자.

말로 이동하는 것이 다른 방식에 비해 편해 보이지만, 말을 조종하는 것은 많은 체력을 요구한다. 자주 말에서 내려 코스마다 휴식을 취하고 충분히 스트레칭을 해주어야 순례를 더욱 편안하게 마칠 수 있다.

말을 타고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Santiago de Compostela)에서 순례를 시작했다면 며칠 전에 해당 지역의 경찰에게 알려야 한다(전화번호 092). 당신에게 이동 시간과 경로를 알려 줄 것이고 경찰의 명령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마찬가지로, 잠시 대성당에 머물기 위해서는 입장할 때 받았던 통행 허가를 오브라도이로 광장 (Plaza del Obradoiro)에서 연장해 준다. 이곳에서 여행을 추억을 남기기 위한 순례 기념사진을 반드시 찍도록 하자.


▼ 몬떼 도 고소
라 꼬루냐

요트

2016년부터는 칸따브리아 해상으로도 산티아고 순례를 할 수 있다. 영국인들과 아일랜드인들이 12세기에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갈 수 있는 항해 경로를 처음으로 개척하였다. 배를 조종해 바다를 헤치고 나가며 새로운 루트에 도전해 보자.

북쪽 루트와 평행한 “Sail the Way”로 잘 알려진 항해 경로는 해상 스포츠를 즐기며 바스크 (Pais Vasco), 칸따브리아 (Cantabria), 아스투리아스 (Asturias), 갈리시아 (Galicia)의 17개의 항구를 통과한다. 순례 인증서를 받으려면 최소 100 해상 마일 (182킬로미터)을 항해하여 17 곳의 항구에서 순례자 도장을 모두 받은 후 걸어서 코루냐의 몬떼 도 고소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의 순례길을 완주해야 한다.





유용한 정보

레알 콜레기아따 데 론세스바예스
나바라

순례길의 숙소

산티아고 순례길에서는 다양한 숙박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각 숙소들은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알베르게

산티아고 순례길의 진정한 경험을 원한다면 순례길 전역에 있는 알베르게(albergue)에 머물러 보자. 알베르게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공공 알베르게는 돈을 낼 필요가 없거나 소액만 내면 된다.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어서 도착하는 순서대로 선착순으로 자리를 준다. 자전거를 타고 순례하는 사람들보다 도보나 말을 타고 순례하는 사람들이 우선권을 가진다.

설령 숙소를 구하지 못했더라도 머무를 곳이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 사실 알베르게도 있고, 시설 알베르게까지 가득 찼다면 성당, 체육관, 학교 등 다양한 공공시설에서 순례자들에게 머무를 곳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알베르게에서 당신과 동료의 충분한 휴식을 보장 받기 위해서 입실과 퇴실 시간을 지키고 야간에는 동료의 숙면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정숙해야 한다. 알베르게에서는 순례자들이 서로 유대감을 가지고 편안하게 길을 건도록 최대한 도우려는 분위기가 잘 형성되어 있다.

호텔

스페인인 훌륭한 관광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순례 중에 당신의 취향과 예산에 맞는 다양한 레스토랑과 사설 숙박 시설을 찾을 수 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자연 온천이 딸린 클래식 호텔과 다양한 카테고리 호스텔까지, 휴식을 취하며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모든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순례길 여러 시골 마을에 있는 가정집에서는 마치 가족과 같이 친절하고 따뜻한 환대를 받을 수 있다.

캠핑장

자연과 진정으로 하나가 되고 싶다면 순례길 곳곳에 퍼져 있는 캠핑장에서 밤을 보낼 수 있다. 캠핑장의 대부분은 녹지가 푸르고 경관이 가장 아름다운 마을에 위치하고 있다. 캠핑장에도 다양한 카테고리 시설이 있다. 모든 캠핑장은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다. 몇몇 캠핑장은 순례자들을 위한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고 어린아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도 상영하고 있다. 북쪽 루트에서 캠핑장이 밀집되어 있고, 한 마을에 두 개 이상의 캠핑장이 있는 경우도 많다. 정해진 캠핑장 외의 장소에서는 캠핑을 할 수 없으니 지역마다 캠핑이 가능한 구역이 어디인지 잘 알아보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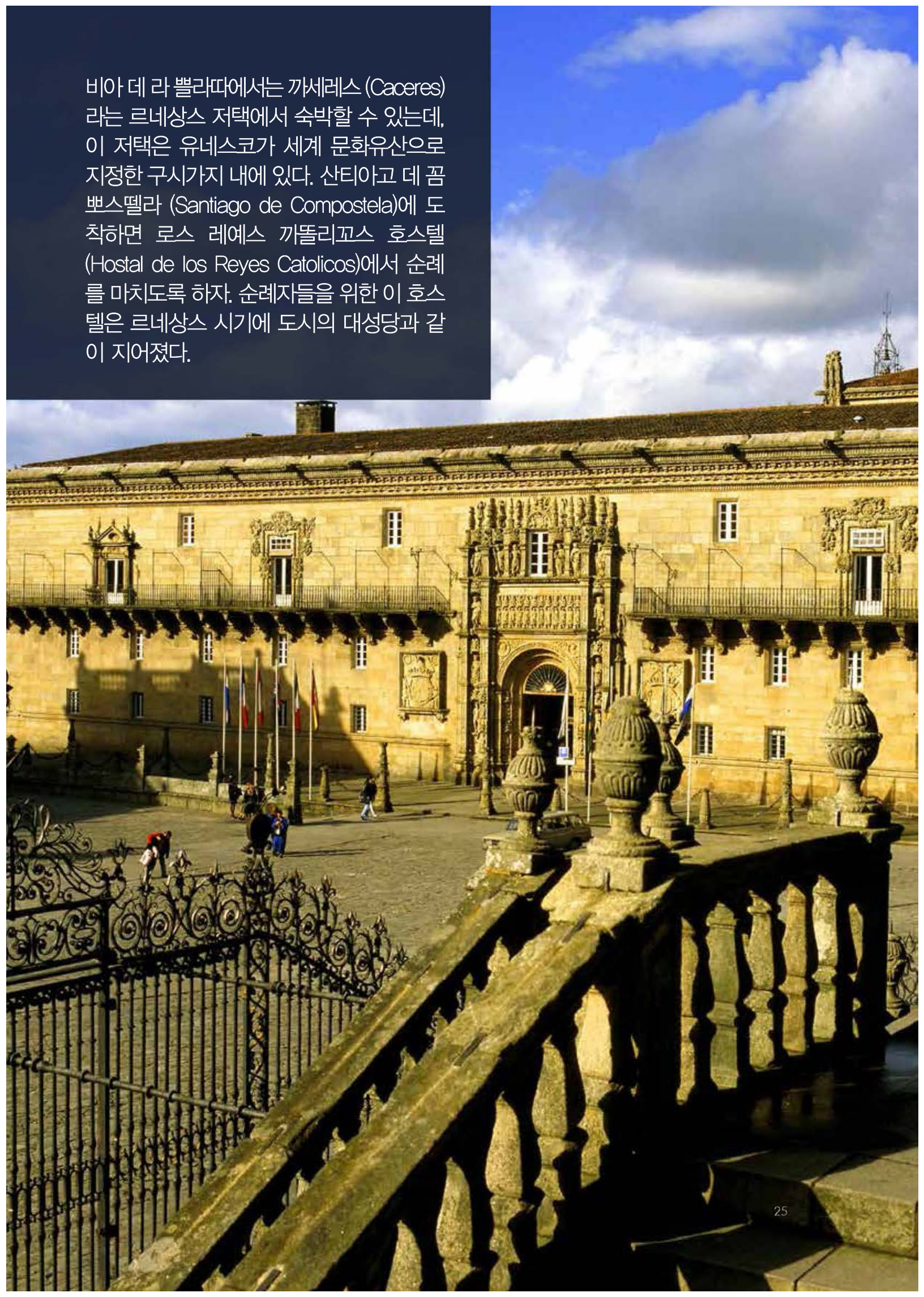
순례길의 빠라도르

순례길의 빠라도르는 경치가 뛰어난 장소나 중세 시대 고성, 왕궁, 예배당, 수도원 등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시설을 현대식으로 개조해 국영으로 운영하는 호텔이다. 빠라도르에서 순례길의 역사를 온몸으로 느껴보자. 빠라도르는 오래 전에 지어진 건물이지만, 내부 시설은 21세기의 최신 상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몇 곳은 스페인의 역사 혹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보호 받고 있다. 빠라도르에서는 각 지역의 전통 미식을 체험할 수 있다. 현재 스페인에는 100개 이상의 빠라도르가 운영되고 있으며, 여기서는 순례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몇 곳을 소개한다.

<https://www.parador.es>에서 모든 빠라도르의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북쪽 루트에는 산악에 이 지역 특유의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빠라도르 데 산티야나 델 마르 (Parador de Santillana del Mar)도 방문해 보자. 아스투리아스를 향해 가다 보면 깡가스 데 오니스 지방의 높은 산맥에 둘러싸인 산 페드로 데 비아누에바 수도원 (Monasterio de San Pedro de Villanueva)도 찾아가 보자. 갈리시아 지방의 고풍스러움을 상징하는 화려한 건축 스타일로 지어진 귀족들의 거주 공간에서, 현재는 빠라도르 데 베린 (Parador de Verin)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 빠소에서 멋진 전망을 감상해 보자. 같은 지역에 있는 산토 에스데보 수도원 (Monasterio de Santo Ewtevo)에서 수도원의 생활방식을 직접 체험하며 그 곳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느껴 보자. 포르투갈 루트를 골랐다면 도로 만들어진 장엄한 요새를 개조해 만든 빠라도르 데 바이오나 (Parador de Baiona)에서 바다 전망을 즐기며 역사를 느껴 보자.

비아 데 라 벨라따에서는 까세레스 (Caceres) 라는 르네상스 저택에서 숙박할 수 있는데, 이 저택은 유네스코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구시가지 내에 있다.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Santiago de Compostela)에 도착하면 로스 레예스 까톨릭호스텔 (Hostal de los Reyes Catolicos)에서 순례를 마치도록 하자. 순례자들을 위한 이 호스텔은 르네상스 시기에 도시의 대성당과 같이 지어졌다.





볼보 아 페이라

까미노에서는 매일 원기를 회복하는 요리를 먹고 에너지를 보충하자. 순례길에서 다양한 스페인 북부지방의 미식을 경험해 보자.

보떼 가에고



순례길에서의 미식

많은 레스토랑에서는 '순례자들을 위한 메뉴'인 메뉴 데 빠레그리노 (Menu de Peregrino)를 제공하는데 저렴한 가격에 각 지역의 전통 음식을 골고루 체험해 볼 수 있는 메뉴이다.

바스크 지방 (Pais Vasco)에서는 바칼라오라는 생선을 뿔뿔 혹은 비스까니아 소스와 함께 먹을 수 있다. 마르미타꼬라는 음식은 보니또라는 생선을 오징어와 먹물을 사용해 스텐을 만든 것이다. 나바라 (Navarra)는 에브로 강 유역에서 자란 채소가 훌륭한데 특히 이 지역에서 유명한 하얀 아스파라거스는 오븐에 굽거나 조개와 같이 요리한다. 간단한 레시피이지만 깊은 맛이 나서 당신은 매료될 것이다. 라 리오하 (La Rioja)는 와이너리로 유명한데, 이곳에서는 마른 포도나무 줄기를 장작으로 사용해 구운 돼지갈비를 맛 볼 수 있다. 우에보스 아 라 리오하나는 삶은 달걀을 마늘과 빨간 파프리카 수프에 다시 끓여 만든 음식이다.

아라곤 (Aragon)에서는 뽀요 알 칠린드론과 산지에서 기른 야채를 기름에 살짝 튀긴 음식이 유명하다. 까스티야 이 레온 (Castilla y León)에서는 장작으로 구운 양고기 바비큐가 있고, 특히 레온(León)에서는 돼지고기와 보띠요라는 이 지역의 전통적인 소시지로 유명하다.



▲ 산티아고 타르트

칸따브리아(Cantabria)에서는 지친 몸의 원기를 회복시켜 주는 꼬씨도 레바니에고와 꼬씨도 몬따네스라는 수프를 먹어보자. 갈리시아에서는 신선한 생선 요리와 우수한 해산물, 그리고 쇠고기가 유명하므로 꼭 맛보자. 뿔뿔 *아 페오리*나 뽀떼 가예고 등의 음식을 맛보고, 산티아고 타르트와 피요아라는 달콤한 디저트로 마무리하자.


산티아고 순례길에서의 미식은 당신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줄 것이다.



 @spain

 @spain

 Spain.info

 /spain